



송광사 '지장시왕도'

### 송광사·대흥사 도난문화재 23년만에 돌아온다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등에서 도난당한 사찰 문화재가 2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순천 송광사와 충남 예산 수덕사 등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 48점을 보관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장 권모(73)씨와 그에게 매매를 알선한 A경매업체 대표 이모(여·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확인된 도난 불교문화재 목록에는 송광사, 선암사, 대흥사 등 전남지역 사찰 3곳의 문화재 5점도 포함돼 있다.

선암사 '53불도' 2점은 석가모니불 등 53불을 6폭의 그림에 나눠 그려 대승불교의 다불사상(多佛思想)을 표현한 작품으로 비슷한 사례가 적어 매우 희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702년 제작된 이 작품은 지난 1998년 2월에 도난당했다.

대흥사 '삼보위패'(제작 조선시대) 2점은 지난 1991년 4월에 도난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광사 '지장시왕도'(제작 1765년) 1점은 1991년 1월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98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경북 청도 용전사 '영산회상도', 수덕사 '지장시왕도',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조선시대 도난 불교문화재 48점을 사들여 서울과 경기도 성남 소재 수장고 7곳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선암사 '53불도'

#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화... 시기·방법론 이견 진통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내용에 따라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개혁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상당한 동력이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에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무성 대표는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김 대표는 22일 청와대

청와대 “연내 처리 방침”에 김무성 “시기 중요치 않아”

野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 연말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 지도부의 연내 처리 입장에 대해서도 “연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다

집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 할 일이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전·현직 공무원들이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는 다른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

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국민연금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계속되는 적자 등을 감안하면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 두 연금의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처럼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당정은 여야의 해법이 각기 달라 올 해 안에 개혁안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 반적인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합장 공명 선거 실천합시다”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22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협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임직원 및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국신에너지 등 진도에 471억 투자

### 전남도·군-5개 기업, 협약 체결

전남도는 22일 오전 진도군 칠마도서관에서 이낙연 도지사과 이동진 진도군수, (주)한국신에너지 등 5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47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남도와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워진 진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950실 규모의 대명 진도해양리조트, 중국 장자도 해상 양식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날 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한국신에너지는 97억원을 투자해 고군면 향동리에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워터 에너지(난방용연료)를 생산하고, 전동스쿠터, 전기

푸딩가 등도 제작한다. 고용 인원은 52명이다.

황금산(주)는 120억원을 투자해 발효 한약재가 첨가된 한방 삼푸, 한방 막걸리, 한방 김 등 한방 건강식품을 생산하면서 한약초와 청정자연을 활용한 웰빙 체험센터를, (주)진도관광호텔은 90억원을 투자해 진도를 동외리에 연회장, 특산물 판매장, 커피숍,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 8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주)산호관광호텔도 84억원을 투자해 진도를 동외리에 7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주)진도전통한옥콘도는 80억원으로 자연풍광이 뛰어난 의신면 초사리에 한옥콘도 30동과 부대시설, 워터파크(250명수용) 등 놀이시설, 해수 찜질방을 각각 설치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여수서 한·일 8개 시·도·현 저출산 대책 회의

전남도는 23일부터 이틀간 여수 오동재호텔에서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 저출산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8개 시·도·현의 아동 양육 실무자 및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2014년 토론 주제로 선정된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자체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여천 어린이집과 순천 아이돌보미센터 등 전남지역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아동 보육 현장과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신생아 출생 시 양육비 지원, 다자녀행복카드제도 도입, 임신부 전용 주차장

설치,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등 전남만의 특성을 살린 출산친화적 정책을 시행, 지난 2007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김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이 이번 실무회의의 통해 새 아이디어, 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 두 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3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2013년 기준 1.19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4 대한민국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

# 국화향기 대제전

2014. 10.24(금) - 11.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함평군 | 후원: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 Tel: 061)320-3349